

여자 대학생의 여성성 과잉(hyperfemininity)과 음주의 관계

신 행 우[†]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여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상관분석 결과, 여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그리고 여성성 과잉과 취한 빈도 및 음주문제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자 대학생들은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낮은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절제력도 떨어지고, 술에 취하는 빈도도 높았으며 또한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여성성 과잉의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여성성 과잉의 고유한 설명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절제력 변인들 중 음주거절능력이 취한 빈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다. 이를 통해 남성성 과잉이 남자 대학생에 있어 음주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이었듯이, 여성성 과잉도 여자 대학생들에 있어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음주문제의 예방 전략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 고정관념, 여성성 과잉, 음주절제력, 음주문제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신행우, (565-701)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심리학과,
E-mail: hwshin@woosuk.ac.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에서 실시한 「2001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69.8%로 1992년의 57.9%에 비해 10년 사이에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의 음주율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성의 음주율은 1992년 33.0%에서 2001년에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놀라운 증가를 보였다. 또한 비록 전국 단위의 표집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지만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들(고영태, 1995; 광정옥과 김영복, 1997; 장승욱, 2003))에서 여대생들은 80~90%대의 음주율을 보여 일반성인 여성의 음주율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의 음주량과 빈도에서의 증가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음주에서의 성차가 특히 대학생 집단에서 줄어드는 경향이 보고되었다(Engs & Hanson, 1990; Hammer & Vaglum, 1989; Mercer & Khavari, 1990; Neve, Drop, Lemmens, & Swinkels, 1996). 이러한 음주의 성차에서 나타난 변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음주에 대한 문화적 금기가 점차 약화되고, 여성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거부하면서 음주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생과 일반성인을 막론하고 대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더 많은 양을 마시며 또한 더 많은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ennan, Walfish, & Aubuchon, 1986; Fillmore, Hartka, Johnston, Leino, Motoyoshi & Temple, 1991; O'Malley & Johnston, 2002).

이와 같은 음주에서의 성차에 대해 일부의 학자들은 남녀간에 알코올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술을 더 적게 마시게 된다고 가정한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신체의 수분량이 적어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또 남성에 비해 알코올의 1차 통과 대사(first-pass metabolism of alcohol) 능력이 떨어져 술로 인한 손상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이다(Frezza, Di Padova, Pozzato, Terpin, Baraona, & Lieber, 1990; Goist & Sutker, 1985; Mumenthaler, Taylor, O'Hara, & Yesavage, 1999). 그런데 Wilsnack, Vogeltanz, Wilsnack 및 Harris(2000)는 음주의 성차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이 현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보다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이 취하는 것 같은 주관적 느낌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음주를 억제한다는 가설을 지지할만한 증거도 부족하고, 어떻게 알코올 대사에서의 비교적 작은 생물학적인 차이가 음주행동에서의 커다란 성차를 나타내게 하는지 또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왜 여성으로 하여금 더 적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덜 자주 마시게 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며, 더불어 사회와 문화에 따라 음주행동에서의 성차가 달리 나타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Wilsnack 등(2000)은 음주의 성차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 때문에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음주하게 된다는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고, 이와 같은 성 역할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성 역할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성 역할 정체감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감과 일치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성 역할 정체감은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Burke & Hoelter, 1989). 음주 행위와 음주에 대한 규범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학습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음주에 대한 정의가 점차적으로 자신의 정의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자신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만일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음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남성들의 음주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남성과 여성은 중요한 타인들의 규범과 행동으로부터 서로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다른 음주 양상을 보일 수 있다(Lo, 1995).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여러 연구들(Helgeson, 1994; Huselid & Cooper, 1992; Ricciardelli, Williams, & Kiernan, 1998)에서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s)이 음주 및 여러 성 관련 행동들에서의 성차를 매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여성이 성 차원(남성성과 여성성)에서 남성과 유사하면 할수록 그들의 행동도 더 남성과 유사해 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 고정관념이란 인간 각자가 세계에 대해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배워감으로써 획득한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및 문화적 측면들에 대한 구조화된 신념 체계를 말한다(Bascow, 1992; Ricciardelli, Williams, & Kiernan, 1998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성 고정관념을 음주와 연관지어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음주는 남성성과 관련이 있었고 낮은 수준의 음주는 여성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mak & Collins, 1987; Huselid & Cooper, 1992; Kleinke & Hindrichs, 1983; Snell, Belk, & Hawkins, 1987).

Mosher와 Sirkin(1984)은 경직되고 굳어진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남성적 지위나 성적 권력에 대한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특징인 과장된 남성성을 지칭하는 개념인 '남성성 과잉(hypermascularity)'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제작하였다. 남성성 과잉 척도는 여성에 대한 굳어진 성적 태도, 폭력을 남자다운 것으로 보는 태도 그리고 위협을 재미로 여기는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Mosher와 Sirkin(1984)은 남성성 과잉과 음주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남성성 과잉이 음주빈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그리고 음주 후의 공격적 행동과도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신행우, 2001)에서도 남성성 과잉은 음주절제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그리고 남성성 과잉과 음주량/빈도 및 음주문제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남성들이 음주를 매우 남성적인 활동으로 지각하고 있어 음주가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들은 남자다워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된다는 Lemle와 Mishkind(1989)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Chomak과 Collins(1987) 그리고 Huselid와 Cooper(1992)의 연구에서도 남성적

인 특성에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음주문제를 일으킬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Murnen과 Byrne(1991)은 남성성 과잉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여성성 과잉(hyperfemininity)’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여성성 과잉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성성 과잉은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성성 과잉 척도는 남성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태도, 낭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매력이나 성이 사용될 수 있다는 태도, 교제하는 남성이 전통적인 남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태도 등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성 과잉의 특성을 지닌 여성은 관계의 유지에 집착하고 관계 속에 머물기 위해 남성의 강압적인 행동을 용인하려 하며,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보다는 성을 통해 남성을 조종하려 하는 모습으로 묘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Klassen & Wilsnack, 1986; Ricciardelli & Williams, 1997; Zucker, Battistich, & Langer, 1981)에서 여성 성 역할과 음주사이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그 결과는 연구마다 제각각이었다. Zucker 등(1981)은 성 역할 채택과 여성의 음주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Klassen과 Wilsnack(198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전통적인 태도가 보다 가벼운 음주와 더 자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icciardelli와 Williams(1997)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바람직하지 않

이 낮고 바람직하지 못한 남성성이 높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성 과잉과 음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Ray와 Gold(1996)는 교제중인 남성과 여성의 남성성 과잉과 여성성 과잉에 따라 그들의 음주양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남성성 과잉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남성들은 여성성 과잉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여성과 교제할 때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여성과 교제할 때 술을 더 많이 마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성 과잉과 여성성 과잉이 음주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보았을 때, 음주가 전형적으로 남성다움을 상징하는 행위이고 또 실제로 남성 성 고정관념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남성성 과잉의 남성들이 술을 더 자주 많이 마시고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한다면, 이와는 반대로 여성성 과잉의 특징을 보이는 여성들은 음주 행동과 관련하여 남성성 과잉의 특징을 보이는 남성들과는 정반대 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McKelvie와 Gold(1994)는 여성성 과잉의 여성들은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규칙들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여성성 과잉이라는 특성은 일정 부분 반사회적 경향성을 내포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성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음주는 여성의 독특한 성 역할로 인하여 태아성 알코올 증후군 등의 질병을 비롯하여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여성음주와 여러 가지 심리학 적 변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더구나 한국에서 성 고정관념과 음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음주문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여성성 과잉이 음주절제력, 음주 정도 그리고 음주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지방 소재 1개 대학에 재학중인 여자 대학생들로 최근 3개월 동안 최소한 1번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17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체 171명 중 1학년이 72명(42.1%), 2학년이 28명(16.4%), 3학년이 47명(27.5%) 그리고 4학년이 24명(14.0%)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 범위는 18~25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6세(표준편차: 1.97)였다.

측정도구

여성성 과잉 척도(Hyperfemininity Inventory) 여성의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평가하기 위해 Murnen과 Byrne(1991)이 개발한 여성성 과잉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이 척도는 총 2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문항은 두 가지의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고 응답자는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Murnen과 Byrne(1991)에 따르면 여성성 과잉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6이었으며,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9였다. 그리고 여성성 과잉은 직업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r=-.22$) 및 경쟁적으로 일하는 것($r=-.32$)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나, 배우자가 권위 있고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r=.46$)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문항분석 작업을 거쳐 전체 26개 문항 중 전체 응답자가 모두 동일한 응답을 한 결과로 변산이 0인 1개 문항(18번)을 우선 제외시키고, 문항-총점 상관이 0.1이하로 매우 낮은 두 개의 문항(4번과 5번 문항)을 제외시켜 총 23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여성성 과잉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3이었으며, 63명을 대상으로 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다.

성 역할 정체감 척도 여성성 과잉과 성 역할 정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ence와 Helmreich(1978)의 PAQ(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를 임용자(1994)가 수정, 번안한 성 역할 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두 52문항의 리커트식 7점 척도로서 크게 남성성 요인과 여성성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 역할 정체감 분류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성 요인의 하위 차원(연약성/이타성)을 묻는

26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음주절제력 척도(Drinking self-regulation Scale) 술을 마실 때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한 음주를 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신행우(2001)가 제작한 음주절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절제력 척도는 음주수준의 설정(문항 예: 술 마시러 갈 때, 어느 정도만 마셔야겠다고 미리 생각한다), 음주압력의 거절(문항 예: 다른 사람이 술을 권해도 내 페이스를 잃을 것 같으면 분명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음주의 완급조절(문항 예: 다른 사람이 원샷을 제안하면 술잔을 완전히 비운다) 등 세 가지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신행우(2001)에 따르면 음주절제력 척도 총 2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으며, 음주수준의 설정(6 문항)은 .73, 음주압력의 거절(7문항)은 .79 그리고 음주의 완급조절(7문항)은 .76이었다.

음주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점 척도(0: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 6: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취한 빈도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술에 취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점 척도(0: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 6:거의 매일)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평균주량 1회 평균주량을 알아보기 위해 술을 한 번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시는지를 맥주를 기준으로 해서 응답하게 하였는데, 응답자가

보다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12개의 선지(0:전혀 안 마심 ~ 11:5000cc이상)를 주고 그 중에서 자신에 해당하는 맥주의 양을 하나 고르게 하였다. 그리고 주로 마시는 술이 소주인 경우에는 그 양을 직접 적게 한 후, 나중에 연구자가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맥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동등한 단위가 되게 변환하였다.

음주문제 음주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행우(1999)가 만든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주문제 척도는 세 가지 음주문제 영역 즉 학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원래 이 척도의 응답방식은 지난 3개월 동안 각 문항이 가리키는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5점 척도(0:전혀 그런 적이 없다 ~ 4:거의 항상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자 대학생들의 음주문제 경험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이 가리키는 음주문제의 경험여부를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여성성 과잉, 성 역할 정체감,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 간의 단순상관

여성성 과잉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과 주로 연약성/이타성을 측정하는 여성 성 역할 정체감 척도의 여성성 요인 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측정하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와 음

주절제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성 과잉의 정도에 따라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먼저 여성성 과잉 척도 및 여성 성 역할 정체감 척도에 대한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arlowe-Crowne(1961)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각 척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점수와 여성성 과잉 척도 점수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 점수와 여성 성 역할 정체감 척도 점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성 과잉 척도 점수와 여성 성 역할 정체감 척도의 여성성 요인 간

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1) = .32, p < .001$.

여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171) = -.34, p < .001$. 그리고 음주 정도와 관련해서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음주빈도나 평균주량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취한 빈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r(171) = .16, p < .05$. 또한 여성성 과잉은 음주문제의 정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r(171) = .22, p < .01$.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이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절제력이 더 떨어지고, 술에 취하는 빈도는 더 높아지며 또한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

표 1. 여성성 과잉, 성 역할 정체감,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상관관계

	성 역할 정체감	음주절제력	음주수준 설정	음주거절 능력	음주 완급조절	음주빈도
여성성 과잉	.32***	-.34***	-.35***	-.25**	-.19*	.14
성 역할 정체감		-.04	-.11	-.08	.10	.07
음주절제력			.78***	.82***	.76***	-.58***
음주수준설정				.50***	.35***	-.39***
음주거절능력					.43***	-.48***
음주완급조절						-.49***

* $p < .05$, ** $p < .01$, *** $p < .001$

표 1(계속)

	취한 빈도	평균주량	음주문제 전체	학업기능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대인 관계손상
여성성 과잉	.16*	.14	.22**	.24**	.09	.14
성 역할 정체감	-.01	-.07	-.06	-.05	-.01	-.05
음주절제력	-.46***	-.56***	-.51***	-.49***	-.26**	-.42***
음주수준설정	-.33***	-.35***	-.38***	-.36***	-.21**	-.34***
음주거절능력	-.43***	-.47***	-.49***	-.50***	-.23**	-.37***
음주완급조절	-.34***	-.51***	-.33***	-.30***	-.18*	-.29***

* $p < .05$, ** $p < .01$, *** $p < .001$

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성 과잉 정도에 따른 집단별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차이

앞서 여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혹시 여성성 과잉의 정도와 이들 음주관련 변인들 사이에 곡선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집단, 중간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을 비교해보았다. 여성성 과잉 高低 집단의 구성을 위해서는 여성성 과잉 척도의 평균±1표준편차를 절단점으로 사용하였다. 즉 여성성 과잉 척도의 평균(7.67)과 표준편차(3.88)를 이용하여 척도의 점수가 4이하이면 여성성 과잉 低 집단(N=39), 척도 점수가 7이나 8점이면 中 집단(N=34), 척도 점수가 11점 이상이면 여성성 과잉 高 집단(N=42)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각각의 음주관련 변인들에 대해 이들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Scheffe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표 2), 여성성 과잉과 음주관련 변인들 간에 곡선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음주절제력과 취한 빈도에서 여성성 과잉 정도에 따른 집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주절제력 척도에서는 총점에서뿐만 아니라 음주수준설정과 음주거절능력 하위 척도에서 여성성 과잉 高 집단이 여성성 과잉 低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한 빈도에서는 여성성 과잉 高 집단이 여성성 과잉 低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음주문제에서는 하위 영역들 중 학업기능의 손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음주문제의 수준이 더 높은 경향성($p=.077$)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표 2 여성성 과잉 정도에 따른 집단별 음주절제력 및 음주문제의 차이

	여성성 과잉 低 집단(N=39)	여성성 과잉 中 집단(N=34)	여성성 과잉 高 집단(N=42)	F	사후검증
음주절제력	60.67(10.49)	55.03(6.31)	52.33(9.91)	851***	低>中,高
음주수준설정	18.23(4.18)	15.06(3.88)	14.52(3.93)	985***	低>中,高
음주거절능력	22.97(3.96)	21.24(2.94)	20.33(4.31)	4.92**	低>高
음주완급조절	19.46(4.55)	18.74(3.07)	17.48(4.06)	2.50†	
음주빈도	3.31(1.08)	3.59(0.86)	3.76(1.12)	1.97	
취한빈도	0.72(0.76)	0.88(0.81)	1.36(1.08)	5.49**	低<高
평균주량	4.31(1.88)	4.53(1.62)	4.81(2.13)	0.71	
음주문제 전체	1.18(1.76)	2.03(3.49)	2.64(3.16)	2.62†	
학업기능 손상	0.44(1.17)	1.00(1.56)	1.19(1.90)	2.45†	
행동상의 문제	0.44(0.75)	0.62(1.46)	0.74(1.17)	0.71	
대인관계 손상	0.46(0.82)	0.56(1.46)	0.93(1.52)	1.44	

† $p<.10$, ** $p<.01$, *** $p<.001$

음주에 대한 자기조절능력이 떨어지고, 더 자주 술에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절제력 및 여성성 과잉의 중다회귀분석

여성성 과잉의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 정도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1 단계에서 음주절제력 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2 단계에서 여성성 과잉 점수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언 변인들 간에 -.35 ~ .50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거 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을 할 때마다 예언 변인들 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보았는데, 준거 변인들 각각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표 3)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음주절제력 변인 중 음주완급조절능력이 2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주거절능력과 음주수준설정은 각각 9%와 2%의 설명량을 더해주었다. 평균주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음주완급조절능력이 2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음주거절능력은 8%의 설명력을 더해주는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한편 취한 빈도에 대해서는 음주거절능력이 18%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고, 음주완급조절능력은 3%의 설명량을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빈도, 평균주량 및 취한 빈도 등 음주정도과 관련된 변인들에서 여성성 과잉은 전혀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니었다.

음주문제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음주문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음주절제력 변인들 중 음주거절능력이 적게는 5%에서 최대 25%의 설명력을 가지는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이었으며, 음주수준설정은 대인관계 손상 영역에서 3%의 설명력을 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성 과잉은 음주 정도에서처럼 음주문제 정도에 대해서도 전혀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니었다.

표 3.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에 대한 음주절제력 및 여성성 과잉의 중다회귀분석

	1 단계						2 단계		R ²
	음주수준설정		음주거절능력		음주완급조절		여성성 과잉		
	Beta	Δ R ²	Beta	Δ R ²	Beta	Δ R ²	Beta	Δ R ²	
음주빈도	-.16*	.02	-.26**	.09	-.33**	.24			.35
취한빈도			-.34**	.18	-.18*	.03			.21
평균주량			-.31**	.08	-.39**	.26			.34
음주문제 전체	-.17*	.03	-.39**	.24					.27
학업기능 손상			-.47**	.25					.25
행동상의 문제			-.22**	.05					.05
대인관계 손상	-.20*	.03	-.27**	.14					.17

* p<.05, ** p<.01, *** p<.001

논 의

여성 음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알코올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여성 음주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음주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해 음주에서의 성차를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 중 하나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음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여성성 과잉이 음주절제력, 음주 정도 및 음주문제의 정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먼저 여성성 과잉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의 상관관을 분석해본 결과 유의한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Murnen과 Byrne(1991), Maybach와 Gold(1994) 그리고 McKelvie와 Gold(1994)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결같이 여성성 과잉과 사회적 바람직성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Murnen과 Byrne(1991)은 여성성 과잉으로 채점되는 방향의 응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McKelvie와 Gold(1994)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이 사회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자기-소외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결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여성성 과

잉 척도에 대한 응답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성 과잉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 내용들 중 상당부분이 주로 남성의 주도성을 다루고 있고, 또 아직까지 많은 측면들이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성 과잉 쪽으로의 응답이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 것이어서 여성성 과잉 척도의 응답에 미치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한편 Murnen과 Byrne(1991)에서 여성성 과잉은 Bem 성 역할 척도의 여성성이나 남성성과 유의한 상관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비록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여성성 과잉이 연약성과 이타성을 측정하는 성 역할 정체감 척도의 여성성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여성성 과잉 척도가 여성 성 역할 정체감과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그리고 여성성 과잉과 취한 빈도 및 음주문제의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결과이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즉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대생일수록 음주절제력이 떨어지고 더 자주 술에 취하고 또 음주문제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것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성 과잉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여성성 과잉 척도가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McKelvie와 Gold(1994)는 여성성 과잉 척도가 측정하는 몇 가지 특징들은 여성의 전통적인 속성들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신념들 중 한 가지는 여성들이 성적 억제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성을 마치 상품처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여성성 과잉 척도는 전통적인 여성 성 역할에 포함될 수 있는 온정, 친절, 공감 및 관용 같은 긍정적 특징들은 측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Ricciardelli와 Williams(1997)는 성 역할을 바람직한 남성성, 바람직하지 못한 남성성, 바람직한 여성성 및 바람직하지 못한 여성성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성 역할 척도를 사용하여 음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바람직한 여성성(‘아이들을 사랑한다’와 같은 여성에게 보다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이 낮고 동시에 바람직하지 못한 남성성(‘위세를 부린다’와 같은 남성에게 보다 전형적이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높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아마도 여성성 과잉 척도는 여성성의 내용들 중 주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또 그래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보다 많은 정신병리 증상들과 사회적 소외감 및 자기-소외감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Kelvie

& Gold, 1994). MMPI-2와 Brief Symptom Inventory(BSI) 상에서 나타난 반응 양상을 보면,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고,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고 또한 감정이 쉽게 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자의식을 느끼는 등의 높은 대인감수성을 보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자 대학생들은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낮은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절제력이 더 낮고, 술에 취한 빈도와 음주문제의 정도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여성성 과잉의 정도에 따라 세 집단을 구성한 후, 여성성 과잉과 음주절제력, 음주정도 및 음주문제의 정도 사이에 곡선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바, 여성성 과잉과 음주 관련 변인들 간에 곡선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성 과잉 고 집단은 여성성 과잉 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절제력이 더 낮고, 취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문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성 과잉 고 집단의 음주문제 수준이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런데 비록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대생들이 현재 취한 빈도나 음주문제의 정도에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음주절제력에서의 차이를 같이 고려해보았을 때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자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여자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더 높은 잠재적 위험 집단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주 정도와 음주문제 정도에 대한 여성

성 과잉의 고유한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음주절제력 변인의 설명력을 제외하고 나면 음주 정도나 음주문제의 정도에 대한 여성성 과잉의 예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성 과잉이 음주절제력과 같은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체계적인 모형검증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과제이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음주절제력 변인들 중 음주거절능력은 취한 빈도의 변산 중 18% 그리고 음주문제 중 학업기능 손상 영역의 변산 중 25%를 설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었다. 기존의 여러 연구(Mumen & Byrne, 1991; McKelvie & Gold, 1994)에서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강압에 대해 강하게 자기주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 남성이 권위적인 위치에 있을 때는 성적 강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McKelvie와 Gold(1994)는 여성성 과잉의 정도에 따라 주장성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최소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낯선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주장성의 수준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밀한 남성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주장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앞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이 관계의 유지에 집착하고 관계 속에서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보다는 성을 통해 남성을 조종하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은 친밀한 남성과의 관계에서 주장성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주장성을 직접 측정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주장성의 수준이 낮을 것이고 이것이 다시 낮은 음주거절능력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음주가 주로 친숙한 사람들과 이루어지고 특히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 선배와 같은 남성으로부터 음주압력이 가해질 때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자 대학생들은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남성성 과잉이 남자 대학생들에게 있어 음주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이었듯이 결국 여성성 과잉도 여자 대학생들에게 있어 음주문제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자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여성성 과잉의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또 자기주장훈련 등을 통해 음주압력거절 효능감(drinking refusal efficacy)을 높여주는 것이 음주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성성 과잉이라는 개념이 음주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여성성 과잉은 아직 그 속성이 분명하게 밝혀진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성 과잉과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들(예를 들면, 성격 특징, 문제해결양식, 정신병리 등)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 과잉만을 주로 다루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성성과 여성성 각각에 대해 바람직한 측면과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 모두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the Australian Sex-Role Scale(Antill, Cunningham, Russell, & Thompson, 1981; Ricciardelli & Williams, 1997에서 재인용)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성 역할 고정관념과 음주의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록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했으나 문화에 따라 성 역할 고정관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 문화에 맞는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여 여성성 과잉과 음주의 관계를 재검증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성 역할 고정관념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히 반대 성(性)과의 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교제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예컨대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이 남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남성과 교제할 때와 남성성 과잉이 낮은 남성과 교제할 때 음주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래 여성성 과잉이라는 개념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성의 성향 변인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여성성 과잉의 정도가 높은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Murnen & Byrne, 1991; McKelvie & Gold, 1994). 더구나 성폭력이 음주 상태에서 더 빈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성성 과잉, 성폭력을 당한 경험, 음주 양상 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들 변인들의 인과 관계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연구는

단순히 여성 음주에 대한 이해의 증진뿐만 아니라, 여성 성폭력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대학생이 아닌 여성들 그리고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영태 (1995). 여대생의 음주 실태와 음주에 대한 의식 구조. 덕성여대논문집, 24집, 327-338.
- 곽정옥, 김영복 (1997). 일부 여자대학생들의 음주실태와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0(2), 259-269.
- 신행우 (1999). 성격 특성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05-122.
- 신행우 (2001). 남성성 과잉(hypermascularity)과 음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391-398.
- 임용자 (1994). 성역할 관련요인이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승욱 (2003). 대구지역 대학생 음주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2(1), 109-123,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2001년 국민건강 영양조사-보건 의식 행태편, 보건복지부.
- 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65-579.
- Brennan, A. F., Walfish, S., & Aubuchon, P. (1986). Alcohol use and abuse in college students. II. Social/environmental correlates.

- methodologic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 21(4&5), 475-493.
- Burke, P., & Hoelter, J. (1989). Identity and sex-role differences in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form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17, 29-47.
- Chomak, S., & Collins, R. L. (1987).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behaviors and alcohol consumption in undergraduate men and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8, 194-201.
- Engs, R. C., & Hanson, D. J. (1990).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patterns and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35(2), 36-47.
- Fillmore, K. M., Hartka, E., Johnston, B. M., Leino, E. V., Motoyoshi, M., & Temple, M. T. (1991). A meta-analysis of life course variation in drinking.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6, 1221-1268.
- Frezza, M., Di Padova, C., Pozzato, G., Terpin, M., Baraona, E., & Lieber, C. S. (1990). High blood alcohol levels in women: the role of decreased gastric alcohol dehydrogenase activity and first-pass metabolis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2, 95-99.
- Goist, K. C. Jr & Sutker, P. B. (1985). Acute alcohol intoxication and body composition in women and men. *Pharmacology, Biochemistry & Behavior*, 22, 811-814.
- Hammer, T., & Vaglum, P. (1989). The increase in alcohol consumption among women: a phenomenon related to accessibility or stress? A general population study.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4, 767-775.
- Hegelson, V. S.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Huselid, R. F., & Cooper, M. L. (1992). Gender roles as mediators of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alcohol use and ab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348-362.
- Klassen, A., & Wilsnack, S. (1986). Sexual experience and drinking among women in a U. S. national survey.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5, 363-392.
- Kleinke, C. L., & Hindrichs, C. A. (1983). College adjustment problems and attitudes toward drinking reported by feminine, androgynous, and masculine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7, 373-382.
- Lemle, R., & Mishkind, M. E. (1989). Alcohol and masculinit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6, 213-222.
- Lo, C. C. (1995). Gender differences in collegiate alcohol use. *Journal of Drug Issues*, 25, 817-836.
- Maybach, K., & Gold, S. R. (1994). Hyperfemininity and attraction to macho and nonmacho men.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 91-98.
- McKelvie, M., & Gold, S. R. (1994). Hyperfemininity: Further definition of the construc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1, 219-228.
- Mercer, P. W., & Khavari, K. A. (1990). Are women drinking more like men?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convergence hypothesi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4, 461-466.
- Mosher, D. L., & Sirkin, M. (1984). Measuring a

- macho personality constell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8, 150-163.
- Mumenthaler, M. S., Taylor, J. L., O'Hara, R., & Yesavage, J. A. (1999). Gender differences in moderate drinking effects. *Alcohol Research & Health*, 23(1), 55-64.
- Mumen, S. K., & Byrne, D. (1991). Hyperfemininity: Measure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nstruc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8, 479-489.
- Neve, R. J. M., Drop, M. J., Lemmens, P. H., & Swinkels, H. (1996).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behavior in the Netherlands: Convergence or stability? *Addiction*, 91, 357-373.
- O'Malley, P. M., & Johnston, L. D. (2002). Epidemiolog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No. 14, 23-39.
- Ray, A. L., & Gold, S. R. (1996). Gender roles, aggression, and alcohol use 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3(1), 47-55.
- Ricciardelli, L. A., & Williams, R. J. (1997).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and alcohol expectancies as modified by gender stereotypes and living arrangements.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43, 8-17.
- Ricciardelli, L. A., Williams, R. J., & Kiernan, M. J. (1998). Relation of drinking and eating to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6), 744-752.
- Snell, W. E., Belk, S. S., & Hawkins, R. C. (1987). Alcohol and drug use in stressful times: The influence of the masculine role and sex-related personality attributes. *Sex Roles*, 16, 359-373.
- Wilsnack, R. W., Vogeltanz, N. D., Wilsnack, S. C., & Harris, T. R. (2000). Gender differences in alcohol consumption and adverse drinking consequences: cross-cultural patterns. *Addiction*, 95(2), 251-265.
- Zucker, R., Battistich, V., & Langer, G. (1981). Sexual behavior, sex-role adaptation and drinking in young wome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2, 457-465.

원고 접수: 2004년 8월 14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9월 10일

게재 결정: 2004년 9월 14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femininity and alcohol use in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Haeng-Woo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femininity, which is defined as exaggerated adherence to a stereotypic feminine gender role, and drinking self-regulation and secondly drinking problems in female colleg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femininity and drinking self-regulation a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femininity and frequency of alcohol intoxication.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yperfemininity and the degree of drinking problems. In other words, high hyperfeminine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were lower in drinking self-regulation an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lcohol intoxication and drinking problems than low hyperfeminine stu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drinking refusal ability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n alcohol intoxication frequency and problems, but hyperfemininity was not a unique significant predictor. It was suggested that hyperfemininity could be a risk factor of drinking problem development in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as was hypermasculinity a risk factor of drinking problem development in undergraduate male students. Discussions for the prevention strategies of drinking problems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were provided.

Keywords: gender stereotypes, hyperfemininity, drinking self-regulation, drinking problem

<부 록>

※ 다음 설문은 비교적 잘 알려진 척도인데, 다소 직설적인 표현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들은 ①과 ② 두 가지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끝까지 자세히 읽고, 귀하는 ①과 ②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①이나 ② 중 해당하는 번호 위에 V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시되, 응답을 고르는데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①과 ②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여 두 가지 중 귀하에게 조금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①요즘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각자의 비용을 각자가 따로 지불해야 한다.
②데이트할 때 남자는 언제나 자신이 모든 비용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① 나보고 선택하라면, 유명한 패션모델이 되느니 차라리 저명한 과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② 나보고 선택하라면, 저명한 과학자가 되느니 차라리 유명한 패션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3. ① 나는 약간의 性 경험이 있는 남자가 좋다.*
② 내가 남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이 性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4. ①두 사람이 모두 한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사이의 우정에 금이 가서는 안 된다.
②때로 여자들은 한 남자를 두고 서로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5. ① 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게임을 즐긴다.*
②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6. ①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면, 나는 그 사람과 기꺼이 성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②나는 性(섹스)을 남자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7. ① 나는 나의 성적 욕구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② 나는 때로 속마음은 ‘그래(yes)’인데, 겉으로는 ‘안돼(no)’라고 말하곤 한다.*
8. ① 나는 여러 남자와 장난 삼아 연애하기를 좋아한다.*
② 나는 한 남자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 9 ①나는 여자 친구들과의 우정이 한 남자와의 관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②여자 친구들과 만나고 있는 동안 어떤 멋진 남자가 내게 밖으로 같이 나가자고 제안해오면 응할 것이다.*
- 0 ① 나는 데이트할 때 대개 내 몫의 비용은 내가 낸다.
② 나는 데이트하는 남자가 내 몫의 비용도 모두 내주었으면 좋겠다.*
- 1 ①때때로 나는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흐느껴 울 때가 있다.*
②나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을 때,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시키는 편을 더 좋아한다.
- 2 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섹스를 원한다.*
②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성적 욕구에 있어 아무런 차이도 없다.
- 3 ① 나는 결코 나의 섹시함을 이용하여 남자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② 나는 때때로 남자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섹시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 4 ① 남자들이 나에게 휘파람을 불어댈 때 나는 화가 난다.
② 남자들이 나에게 휘파람을 불어댈 때 나는 약간 우쭐해진다.*
- 5 ① 남자가 성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간의 완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② 섹스 동안에 사용되는 완력은 모두 성적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 6 ① 여자 같은 남자는 비웃음 당해도 싸다.*
② 흔히 '여자 같은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매우 매력적이다.
- 7 ① 운동을 잘 하는 여자들은 아마도 남자들이 흥미 없어 할 것이다.*
②남자들은 운동을 잘 하는 여자들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 8 ①진짜 사나이'란 그가 성 관계를 맺고 싶은 여자라면 누가 되었든지 실제로 그녀와 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
②남자다움이란 성적(性的)인 면의 성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9 ① 나보고 선택하라면, 대통령 영부인이 되느니 차라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② 나보고 선택하라면, 대통령이 되느니 차라리 대통령 영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20. ①때때로 나는 내 자신의 감정보다도 내 남자 친구의 감정에 대하여 신경을 더 많이 쓰곤 한다.*
②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 남자 친구가 만족하는 만큼 나도 관계에 대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 1 ① 대부분의 여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남자 파트너가 필요하다.*
② 어떤 여자들은 남자 파트너 없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다.
- 2 ①내가 사귀는 사람이 정말로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때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②남자들은 자신의 성적 흥분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 3 ① 나는 남자가 나를 리드해주는 것이 좋다.*
② 나는 두 사람이 서로 동등한 남녀관계가 좋다.
- 4 ① 나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질투를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② 때때로 여자들은 자신의 진가를 남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질투심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 5 ①나는 때때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와 성 관계를 가질 것을 약속한다.*
②대개 나는 나의 성적인 의도를 정직하게 공개적으로 알린다.
- 6 ①나는 남자와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술이 취해서 그랬다고 양해 받을 수 있도록 알뜰뜰하게 술에 취했다고 느끼고 싶다.*
②나는 아주 잘 아는 사이가 아닌 남자와는 취할 정도로 같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

※ 각 문항의 ①과 ② 중 * 표시된 문항에 응답했을 때 여성성 과잉으로 채점됨.